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뼈가 부러진 사고,
법적으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1호점 중부 뉴저지
Eatontown

2호점 서부 뉴저지
Pittstown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RE/MAX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원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KWIK

퀵 모기지

주/택/융/자/전/문

다양한 융자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용은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메디케어 무료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이문식

검안과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경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시시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종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Rt.514)
Edison, NJ 08817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강준한의원

(732)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진료 안내

한의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한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치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시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가고파여행사

201-3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HYUNDAI

TOYOTA

KIA

NISSAN

MAZDA

Jeep

CHRYSLER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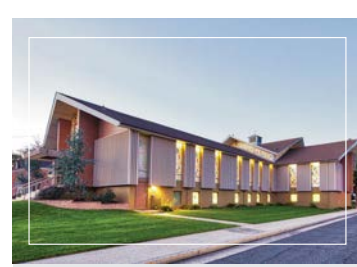
Manny Kim

201-852-3232

90-100 RT.1 Avenel NJ 07001

연중 제2주일

2021년 1월 1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3,3ㄴ-10.19

화답송 시편 40(39), 2ㄴ과 4ㄴ과 7-8ㄴ과 8ㄴ-9.10 (◎ 8ㄴ과 9ㄴ참조)

복음 요한 1,35-42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6,13ㄴ-15ㄴ.17-20

복음환호송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복음 요한 1,35-42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다.〉

후렴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 / 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1/18/20	히브리서 5,1-10	마르코 2,18-22
화요일 01/19/20	히브리서 6,10-20	마르코 2,23-28
수요일 01/20/20	히브리서 7,1-3.15-17	마르코 3,1-6
목요일 01/21/20	히브리서 7,25-8,6	마르코 3,7-12
금요일 01/22/20	히브리서 8,6-13	마르코 3,13-19
토요일 01/23/20	히브리서 9,2-3.11-14	마르코 3,20-21
일요일 01/24/20	요나 예언서 3,1-5.10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7,29-31	마르코 1,14-20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홍순연(비안나)
- 김명규 - 안현정(소화데레사)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육완국(베드로) - 육순재(프란치스코)
- 이근병 - 유 베로니카
- 최상옥(마리아) - 김중화(아카다)
- Jose Uriel Henao - 송진영(마리스텔라)

생미사 (봉헌자)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황 비비안나
- 김영필(안토니오) 김중화(아가다) 가정 - 대자
- 서범석(펠릭스), 김유진 - 가족
- 박선영(글라라) 가족 - 안현정(소화데레사)
- 김정아(아델라) 선생님 - 한지혜(크리스티나)
- 임재홍 - 황 비비안나
- 황분숙(비비안나) 가족 - 황 비비안나

교무금 납부 안내

백상헌 (1)	이호용 (1-2)	변태용 (1-6)
손흥구 (1)	김영필 (1-2)	김금자 (11-2)
육순재 (1-6)	오경선 (1-2)	채희백 (1-2)
합계: \$3,71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1/10 주일 미사 참여 75명	합계: \$646
-------------------	-----------

감사 헌금 납부 안내

최정원 (\$200) 변태용 (\$200)	합계: \$400
-------------------------	-----------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봉헌(생미사/연미사) 예물
- Payable to OLM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정영철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용덕 헨리코, 김삼식 베드로, 오욱순 수산나, 김경희 수산나, 백영숙 헬레나, 유희자 베로니카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안내
- 본당 주임신부님의 7주간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손님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미사를 집전 해주십니다.
- 1/31과 2/7 두 주간은 오후 12시 30분에 미사가 시작되니 유의바랍니다.

- 1/17, 1/24 St. John Vianney 성당 김홍철 베다 신부님
- 1/31, 2/7 이튼타운 한인 성당 이영준 스테파노 신부님
- 2/14, 2/21 체리힐 한인 성당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님

2020년 교무금 납부 증명
- 2020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osary For Life
- 워싱턴 D.C.에서 있을 March for Life 행사와 연대하여 1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우드브릿지 Main St.에서 체키오 주교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립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St. James Parish (369 Amboy ave. Woodbridge) 주차 후 12시 45분경 함께 main St.으로 이동합니다.
- 묵주기도는 영어/스페인어로 봉헌됩니다.

라디오를 통한 주일미사 안내
- 주일미사와 같은 시간에 FM라디오를 통한 미사를 시행합니다. 라디오 방송 미사에 참여하실 분은 성당 옆 큰 주차장의 지정된 지역에 주차 후 주파수를 FM 100.1MHz로 맞추시고 미사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미사 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신부님께서 직접 차량을 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 해주십니다.
- 시작 일시 :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 라디오 주파수 : FM 100.1MHz

성모회에서 주일학교에 \$200 도네이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 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현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장(732-258-5998)

요한 복음 1,35-42

그때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뻬,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뻬’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상식

하느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안녕하세요.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여러가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가 격리”일 것입니다. 요즘은 외국을 나가거나 또는 다른 주에 다녀오고 나서도 2주라는 시간 동안 자가 격리를 하면서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저도 한국에 도착해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을 홀로 지내는 시간에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차 적응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차 적응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여유롭고 편하게 시차 적응을 하는데도, 몸의 생체리듬을 적응시키는 일이라 빨리 되지 않죠. 14시간이라는 차이를 적응하는 일도 이렇게 힘든데, 어쩌면, 하느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를 좁힌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체험을 하기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 찰나의 순간 속에서 깊은 신앙의 기쁨과 깨달음이 찾아올 때면, 하느님이 나의 시간 속에 함께 하고 계심을 아주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복음 묵상 나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질문 1. 내가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질문 2.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지 나눠봅시다.

다른 나라에 가서 또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적응 해야하는 시차는 곧 시간이 해결해 주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시간을 인간이 노력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와 주셔야 한다는 확신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더 굳건히 해 나가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여년 전, 아니 어쩌면, 세상을 창조 하실 때부터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전히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을 빌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분의 아들이고 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느님의 시간이 같이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